

學校文法の 格(case)教育에 對하여

閔 賢 植

1. 本稿는 格(case)¹⁾의 二元 概念(dualism), 즉 成分格(function case)과 意味格(semantic case) 概念에 의해 국어의 助詞와 格의 相關性을 定立한 拙稿(1982 a, c)의 理論을 學校文法에 적용하는 可能性을 모색하고자 시도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學校文法은 오늘날 5 種의 「文法」 교과서에 의해 中等教育課程에서 教授되어 온 것으로 必須로 부여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다. 그 결과 實用文法の 성격인 學校文法이 제대로 國語教育課程에서 교육되지 않으므로 國民의 語文實用能力에 여러가지 결함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어의 子母音 體系와 品詞體系 등에 있어 자신있게 교육받은 대로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다. 물론 學校文法の 기본 요목인 이러한 몇가지를 잘 기억한다고 語文實用能力의 우수성과 직결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그 밑바탕의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學校文法教育이 人智能力에 있어서 論理的 思考力, 整齊된 言語生活能力을 배양시킨다고 할 때 文法教育은 國語教育에 절대 불가결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學校文法教育의 가장 實用的 측면을 반영하는 正書法 教育은 거의 空白상태로 國民의 正書法運用能力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른 감마저 든다(拙稿1982b 참조). 이러한 語文 能力의 白痴化상태의 이유는 다음 몇가지로 지적된다.

첫째, 學校文法の 統一이 未完된 점²⁾

둘째, 표준말 再査定, 正書法改正, 外來語表記法과 Roma 字 表記法 統一의 지연(이 중에서 로마자표기법안은 최근 84년 1월 공포되었음)

1) 格과 助詞의 개념과 체계에 대해서는 J. Lyons(1968), Fillmore(1968), Nilsen(1972, 1973) 崔鉉培(1937), 김 영희(1973, 1974), 申昌淳(1975, 1976), 成光洙(1979)의 종합적 연구를 참조할 수 있고 通時的 연구는 李承旭(1973), 洪允杓(1969, 1979, 1980 a·b), 金昇坤(1978)을 참조할 수 있다.

2) 學校文法 統一운동은 6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다 1963년 7월 25일 문교부에 의해 9 종사와 252 개의 문법용어만 우선 확정공포했는데 긴 文法波動의 과정속에 1967년 학교문법교과서 저자들이 모여 「학교문법통일을 위한 細案」을 발표한 바 있었다.

세째, 非統一 상태의 「文法」科目조차 필수로 부과되지 않은 점

네째, 국어교사 양성기관에서 國語文法の學說은 가르쳤을지언정, 學校文法을 위한 教育國文法 강좌에 소홀함으로 各個 大學出身에 따른 百家爭論式 교육이 이뤄진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위에서, 첫째의 學校文法統一사항은 1963년 文敎部에서 9品詞 명칭과 252개 文法用語만을 결정한 이래 세부적 통일이 불완전한 실정인 바 1984학년도부터는 國定 單一 文法 教科書를 제정하여 교육할 예정이라 하므로 예정대로 될지 알 수 없으나 20년만에 學校文法教育의 일대 전환을 가져 올 것으로 보여 文法教育의 정상화란 측면에서 다행으로 보인다. 둘째, 표준말 再査定과 1933년에 공표된 한글맞춤법통일안의 改正作業은 文敎部 주관하에 국어학자들의 참여로 시도되고 있으나 1970년에 이 개정 작업계획 출발 이래 1979년 12월 文敎部 改正試案이 나왔다가 아직 확정公表되고 있지 못한 채 있다(문교부 1979 참조). 세째, 「文法」교과목의 필수부여 문제는 첫째 문제의 해결로 자동 해결되는 것이며, 네째 문제도 이제 學校文法이 統一되어 必須로 교육되므로 각 국어교사양성기관에서 教育國文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라 하겠다. 아뭏든 이러한 學校文法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學校文法도 새로운 전환을 이룰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는 그 동안 學校文法教育의 큰 혼란상태를 보인 것의 하나인 格과 國語助詞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이 시정되기를 바라는 뜻을 아울러 담고 있다.

2. 國語文法論에서 助詞와 格 論議만큼 화려한 研究史를 지닌 것도 없다. 이것은 初期 國語學者들 이래 助詞의 獨立品詞 設定여부가 (李崇寧 1953 참조) 지금까지도 시원스런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로, 최근 70년대 이후 국어학 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주목받는 國語文法論 概說書인 李翊燮·任洪彬共著 「國語文法論」(1983)에서도 助詞에 대해 그 獨立單語 設定 문제에 있어서는 단정적 기술을 않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助詞는 우선 單語인지 아닌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단어이기에는, 다른 品詞의 단어들에 비해 自立性이 너무 약하고, 또 다른 단어(명사)와의 사이에, 가령 ‘책’을, ‘책에서’에서 ‘책’과 ‘을’이나 ‘책’과 ‘에서’ 사이에 休止나 제3의 단어를 개입시키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接辭로 보기에는 自立性이 강하고 ‘책만을, 책만이’ 처럼 다른 단어와의 사이에 일반 단어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형태소는 들어 갈 수 있어 單語인 듯도 하고 아닌 듯한 바로 그 경계선에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첨가어인 國語 助詞의 特性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특성은 명사, 동사와 같은 自立語와는 다른 準自立語의 성질을 지닌다는 것과 助詞가 格標指(case marker) 기능 및 加意限定辭(delimiter) 기능을 지니는 複合의 特性의 形態素라는 점을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간 助詞論은 國語文法論史가 助詞研究史의 區分과 그대로 일치될 만큼 爭點의 하나였던 것이다. 우선 助詞 研究史를 개괄해 본다(金敏洙 1960, 1971 참조).

2.1. 제 1기: 周時經, 金熙祥, 金料奉 등 1930년대 이전 初期文法家들의 시기로 조사나 용언어미까지 모두 독립단어 및 품사로 보는 ‘形態素=單語’式的 극단적 分析主義 單語觀으로 形態論의 單語(morphological word)의 관점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周時經(1910)은 ‘格’을 ‘등’이라 했으며, 助詞를 ‘것씨’라 하고 ‘것씨’는 다시 ‘이, 을……’ 등 12 종은 ‘만이’라 부르고 ‘에, 로……’ 등 11 종은 ‘금이’라 하고 ‘와’는 따로 ‘잇씨’라 했으나 전반적으로 格에 대한 완벽한 인식은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인식은 다음 제 2기에 와서야 분명해진다.

2.2. 제 2기: 崔鉉培, 李熙昇, 鄭寅承 등 소위 1930년대 해방전 전통문법가들의 견해로 用言語尾는 독립어로 안보되, 助詞는 先行體言이 自立形式이므로 상대적으로 독립단어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특히 조사와 유사한 英語의 전치사를 독립단어로 보는 점에도 유추되어 국어 조사를 독립단어 및 품사로 설정한 것이다.

대체로 제 2기 학자들에서 조사의 분류는 格助詞와 補助詞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며 學校文法統一案(1963, 1967)³⁾도 이를 따른다. 그러나 각각의 하위 분류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여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분류 하나를 보인다.

[崔鉉培 「우리말본」(1937)의 분류]

- | | | |
|----|---|--|
| 助詞 | { | <p>ㄱ. 格助詞(자리토씨): 6 格(主格, 冠形格, 目的格, 補格, 副詞格, 呼格), 다시 副詞格의 下位에 6 格(器具格, 處所格, 比較格, 與同格, 變成格, 引用格) 설정.</p> <p>ㄴ. 補助詞(도움토씨): 는(差異), 도(同一), ……서건(混同) 등 17 종.</p> <p>ㄷ. 接續助詞(이음토씨): 와, 이고, 이며, 이랑, 하고</p> <p>ㄹ. 感歎助詞(느낌토씨): 나, 그러, 요, 말이야</p> |
|----|---|--|

그런데 오늘날 學校文法에서 格教育時의 문제점은 곧 바로 2기 학자들의

3) 「학교 문법 통일을 위한 細案」(1967)에는 主語, 目的語, 冠形語, 副詞語, 補語, 獨立語, 敘述語, 接續語의 8成分體系와 主格, 目的格, 冠形格, 副詞格, 補格, 獨立格, 敘述格, 接續格의 8格을 세웠다.

분류 체계 및 助詞와 格理論에서 胚胎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뒤에서 詳述될 것이다. 우선 傳統文法의 大家 崔鉉培님의 體系에서만 보아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① 格助詞분류에서 成分格개념에 따른 6 格을 설정하고 그중 副詞格에서는 意味格에 따른 분류를 하여 양자를 구별하였음에도 아직 成分格과 意味格의 정확한 개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이들을 모두 同一次元에서 해석하고 있다.

② 崔님의 경우 ‘이/가’는 主格助詞, ‘은/는’은 ‘差異’의 補助詞로 보아 다음과 같은 문장의 해석에 있어 문제점을 초래했다.

(1-1) 나# 간다. (#는 無標의 格標指 表示임)

(1-2) 내가 간다.

(1-3) 나는 간다.

이는 70 년대에 본격적인 ‘主題’⁴⁾ 論議를 가져온 것인데 적어도 위에서 體言 ‘나’가 主語로 자리(格)하였음에 즉 主語로 統辭機能하였으므로(여기서 ‘자리’(格)한다는 것과 ‘統辭機能’한다는 것이 體言에 대해서는 전혀 동일한 개념임을 알 수 있음에 주의하라) 위 문장의 ‘나’는 主語 또는 主格體言 줄여 主格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 ‘가’, ‘는’을 각각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崔님 式으로 ‘가’만을 先行體言의 主格化 표지로 볼 때 (1-1)의 ‘나 간다’의 無標體言의 格기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약 이것을 소위 主格化標指 ‘이/가’의 省略으로 본다면 (1-3) ‘나는 간다’처럼 ‘이/가’가 없는 상태에서 ‘는’으로 ‘나’의 主格기능이 이뤄지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1-2) ‘내가 간다’와 (1-3) ‘나는 간다’의 ‘나’를 同一한 主語의 格을 지닌 體言으로 보면서 ‘가’와 ‘는’을 상이하게 해석하여⁵⁾ ‘가’에만 格標指기능이 있다고 하는 崔님式 記述에 심한 당황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그후 국어학계에서 ‘접주어’ 논의, ‘主題’ 논의를 크게 유발했던 것은 주지 하는 바와 같다.

③ 崔님은 ‘-이다’에 대해 體言의 敍述格 표지로 안보고 별도로 잡음씨(指定詞)라는 用言으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체언의 위치에 따라 格은 成分

4) 主題는 二重主語문제로 나타나는데 대개 大主語(總主語)說, 명사구의 확대변형설, 大小(macro-micro) 관계설, 주제-해석구조설, 정보구조설 등으로 해석한다. 任洪彬(1972, 1974) 김영희(1978) 참조.

5) 崔鉉培「우리말본」(1937, 1971)에서 ‘는’을 主格助詞와 相異補助詞 두가지로 記述하고 있다.

국기는 그나라의 상징이다(主格助詞)

나는 오늘 해수욕장에는 못가겠소(相異補助詞) (p638)

과연 이들이 달리 취급될 성질인지 의심스럽다.

格개념에 準한 6 格體系를 수립하고, 체언을 서술어자리에서 서술격으로 인식시키는 ‘-이(다)’는 格표지로 안보는 ‘예외’를 허용하게 되므로 따라서 그의 成分이 7 成分體系인데도 체언의 成分格은 서술격이 없는 6 成分格이 되는 전체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이(다)’가 다른 조사와 달리 ‘이고, 이니, 이므로……’ 등으로 活用한다는 用言의 特性때문에 잡음씨라는 용언으로 보게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그후 指定詞 설정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생겼고 指定詞 논의는 學校文法統一에 큰 停滯를 빚어내기도 했다.

③ 補格과 副詞格의 구별이 분명치 못하여 副詞語로 쓰인 體言 밑에 오는 조사라고 한 副詞格助詞들 중, 崔님이 처소격이라 한 ‘N에게, 더러, 한테’, 자격격이라 한 ‘N로, 로서’, 비교격이라 한 ‘N와, 처럼, 같이, 보다’, 변성격이라 한 ‘N이/가’, 인용격이라 한 ‘N(이)라고’ 등의 조사는 이들 조사의 선행체언 N이 용언을 수식하는 통사기능상 2 차 성분인 부사어라고 해석하여 이들 조사를 부사격조사로 처리했지만 그 後行用言들이 補語를 필요로 하는 不完全用言이라고 해석할 경우 先行體言 N은 補語로 볼 수 있고 따라서 N에 붙은 조사는 補格助詞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2-1) A가 N(에게, 더러, 한테) 준다

(2-2) A가 N(로, 로서) 뵈히다.

(2-3) A가 N(와, 처럼, 같이, 보다) 비슷하다

(2-4) A가 N(이/가) 되다.

(2-5) A가 N(이라고) 말했다.

즉, 위 예문의 밑줄친 용언을 崔님은 完全用言으로 보고 위 N들을 부사어로 보므로 위 조사들을 부사격 조사로 처리했으나, 오히려 밑줄친 용언들을 보어를 요구하는 불완전용언으로 볼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사격과 보격 범주 설정에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던 것이다. 이 문제 역시 學校文法에 그대로 轉移되어 교사들이 설명하기 꺼리는 분야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

사실 表面構造上的 體言의 格문제는 體言의 統辭機能 즉 成分 문제로 직결되는 것으로 形態論과 統辭論의 복합적 성격을 띤 統辭形態論의 대표적 영역이라 하겠는데 위에서 알 수 있듯 현재로서는 補語와 副詞語의 구별문제가 해결되어야 補格과 副詞格이라는 두 成分格의 구별도 해결된다고 하겠다.

④ 崔님의 6 格명칭이 主格, 冠形格, 目的格, 補格, 副詞格 등 5 개는 체언의 成分格개념에 근거한 명칭이면서 나머지 하나 呼格은 그 조사 ‘아/야/이여’ 등의 意味素가 ‘呼稱意味素’임에 따라 意味格上的 명칭이 되어 格명칭

상의 논리적 균형을 잃고 있다. 이 호격조사라는 것이 독립어자리에 출현함이 특징이며 崔님도 독립어라는 성분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成分格개념상 ‘獨立(語)格’이라고 했어야 할 것이다.

⑤한 형태소의 조사가 여러 범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조사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격기능의 조사로 기술되었다.

이/가 : 主格, 補格, 變成格

로 : 處所格, 器具格, 資格格, 變成格

와/과 : 比較格, 與同格, 接續助詞

이러한 점은 결코 국어의 약점일 수 없는 것인데 오히려 한개의 형태소로 몇가지 文法範疇기능을 부담케 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기도 하여 국어 조사의 중요한 특성인 바, 문제는 崔님을 비롯한 2기 학자들의 이러한 분류가 상당히 任意的인 분류폭을 지녔다는 점이고 이것이 학교문법의 격범주에 영향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 崔님의 文法을 통한 助詞論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요컨대 成分格과 意味格의 개념을 명확히 분류하지 못한 큰 결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은 다음 3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3. 제 3기 : 鄭烈模, 張河一, 李崇寧 등에 의한 해방이후의 학설로 이들은 助詞나 用言語尾를 모두 屈折範疇(inflexion category)로 보고 體言의 격변화는 曲用(declension), 用言의 어미변화는 活用(conjugation)이라 한다. 따라서 格助詞를 格語尾 또는 曲用語尾라 부르게 된다. 이것은 Latin語의 曲用方式과 국어 체언의 격조사 첨가방식을 동일시한 해석결과인데 이 역시 많은 논란을 가져온 바 있다.⁶⁾ 그런데 격조사를 격어미로 格下시켜 독립단어로 볼 수 없게 되자 상대적으로 補助詞의 처리가 대두되는데 3기의 학자들은 대개 이 補助詞는 後置詞(postposition)라고 설정한다. 그런데 이미 後置詞 설정은 국어 조사가 영어 전치사와 매우 흡사한 점에 유추되어 19C 선교사들의 한국어 연구, 예컨대 Underwood(1890)와 Altai語學에서 Ramstedt에 의한 postposition 설정(Ramstedt 1939: 150)에 이미 보이던 것으로 국내 학자로는 洪起文(1947)의 후치사 설정을 비롯 李崇寧, 李承旭, 李基文教授 등에 의한 기술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補助詞가 꼭 後置詞목록과 일치하지도 않은 것이 이들의 분류이기도 하여 앞으로 補助詞와의 관계가 밝혀져야겠다. 그리고 3기 학자들의 格用語는 주로 조사 意味素에 따라 ‘主格, 對格, 屬格, 與格, 處格, 向格, 具格, 共同格……’ 등 간결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6) 이석린(1963), 신익성(1968)의 우리말 格語尾說 논의 참조.

2기에서 문제되는 成分格과 意味格 개념은 아직도 未分化 상태이다. 이 개념의 分化는 4기에 이르러 가능하게 되었다.

2.4. 제 4기 : 60년대 이후 변형생성문법의 도입으로 국어문법이 재조명되면서 특히 Fillmore에 의해 시도된 格文法이 소개되면서 국어의 格과 助詞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김영희(1973, 1974), 成光洙(1979)에 의해 비교적 소상히 전반적 연구가 이뤄졌다. 이러한 4기 연구의 업적은 統辭構造를 심층구조와 표면구조로 구별하는 변형생성문법의 기본개념에 입각하여 심층구조상의 체언의 格을 深層格(deep case)이라 하고 표면구조상의 체언의 格을 表面格(surface case)이라 구별하였다. 심층격은 통사구문내에서 체언과 서술용언과의 의미기능 관계를 체언의 심층격으로 파악한 것인데 여기서는 체언과 서술용언(N-V) 상호간의 어휘의미자질(lexical sememe feature)분석이 格체계분류에 절대적인 바, 의미론 특히 어휘의미론을 통사형태론의 영역인 格範疇에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격범주야말로 형태·통사·의미론의 3분야가 협동해야 하는 범주의 대표적 예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휘의미론⁷⁾에 입각한 N-V의 의미기능분석을 체계화하여 심층격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상당히 恣意的, 任意的 理論이 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格文法을 제기한 Fillmore 자신의 格體系에서도 그 분류에 수차례 변동이 있었음에서도 알 수 있으니 Fillmore(1966)에서는 5格, Fillmore(1968), (1971)에서는 각각 6格, 9格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더우기 학자들마다 이 심층격의 분류가 다를 수 있으니 Nilsen(1973)은 15格에 까지 이른다.⁸⁾ 이러한 심층격의 격체계의 다양성은 2기 학자들의 격분류의 다양성에서 이미 체험한 것과 유사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심층격의 개념에 의하면 종래의 主格(主語格), 目的格(=目的語格, 對格), 冠形格(=冠形語格, 屬格, 所有格), 共同格(=列舉格, 接續格), 敘述格의 5가지는 심층격으로 설정될 수 없는 것이 된다. 예컨대, 모두 主格이라고 인식되어 온 아래 예문의 밑줄친 체언 N들은 심층격의 개념으로는 각각 < >안에 해석한 格으로 불리워진다. 여기서 심층격의 해석은 Nilsen(1973)의 15격체계에 따른 것이다.

7) 국어 어휘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의 종합은 沈在箕(1981) 참조

8) Nilsen(1972, 1973)은 意味格을 다음과 같이 15격으로 분류하였다.

{ I. 命題格(Propositional case) : 行爲格 Agent, 道具格 Instrument, 體格 Body Part, 力格 Force, 材料格 Material, 經驗格 Experiencer, 對象格 Objective (7格)
II. 副詞格(Adverbial case) : 態格 Manner, 量格 Extent, 原因格 Reason, 處格 Locative, 時格 Temporal, 源格 Source, 經路格 Path, 達格 Goal (8格)

- (3-1) 내가 그를 때렸다. 〈行爲格 Agent〉
 (3-2) 칼이 잘 든다〈道具格 Instrument〉
 (3-3) 칼이 예쁘다. 〈對象格 Objective〉
 (3-4) 나는 음악을 즐겼다. 〈經驗格 Experiencer〉
 (3-5) 슬플이 일어났다. 〈態格 Manner〉
 (3-6) 1000명이 모였다. 〈量格 Extent〉
 (3-7) 제주도는 관광지구이다. 〈處格 Locative〉
 (3-8) 12시가 약속시간이다. 〈時格 Temporal〉
 (3-9) 내가 그에게 물건을 주었다. 〈源格(=始源格) Source〉
 (3-10) 그가 나에게서 물건을 받았다〈達格(=到達格) Goal〉

위의 심층격 해석에서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格의 개념이 지금까지 格표지 형태소(국어의 경우는 격조사) 중심으로 전개된 것에서 체언과 서술용언 N—V간의 의미기능이란 본질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위 (3)예문들에서 체언 N에 붙은 조사 ‘이/가’, 은/는’을 주격표지 또는 주격조사라고 부르는 것이 절대적 당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위 예문의 체언 N들이 꼭 이 조사를 첨가 해야만 주어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어 즉 주격체언으로 기능하는 것은 적어도 위 예문에서의 경우는 N—V 의미기능 관계에서 결정되어지니 이 조사가 안 붙더라도 즉 無標格형태로 (3-1)′ 나#그를 때렸다. (3-2)′칼# 잘 든다. (3-3)′ 칼#예쁘다. …처럼 충분히 통사 및 의미 기능이 성립되어 正文을 이룬다.

아mong은 종래 主格이라 하던 것의 심층격이 이처럼 N—V 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은 종래의 目的格에서도 마찬가지다.

- (4-1) 가게를 돌렸다. 〈道具格 Instrument〉
 (4-2) 그림을 감상했다. 〈對象格 Objective〉
 (4-3) 아이를 울렸다. 〈經驗格 Experiencer〉
 (4-4) 기쁨을 표시켰다. 〈態格 Manner〉
 (4-5) 1000명을 모았다. 〈量格 Extent〉
 (4-6) 고향을 좋아한다. 〈處格 Locative〉
 (4-7) 겨울을 좋아한다. 〈時格 Temporal〉
 (4-8) 서울을 떠났다. 〈源格 Source〉
 (4-9) 서울을 거쳤다. 〈經路格 Path〉

(4-10) 서울을 향해 떠났다. 〈達格 Goal〉

그리고 ‘N₁의 N₂’ 구조로 표현되는 冠形格도 마찬가지다.

(5-1) 나의 행동〈行爲格 Agent〉

(5-2) 칼의 성능〈道具格 Instrument〉

(5-3) 철수의 부상〈經驗格 Experiencer〉

(5-4) 그림의 감상〈對象格 Objective〉

(5-5) 나의 분노〈態格 Manner〉

(5-6) 1000명의 인원〈量格 Extent〉

(5-7) 서울의 경치〈處格 Locative〉

(5-8) 새벽의 신선함〈時格 Temporal〉

(5-9) 철수의 (철수가 보낸) 편지〈源格 Source〉

(5-10) 영희의 (영희가 받은) 편지 〈達格 Goal〉

또한 共同格(열거, 접속격)의 ‘N₁와 N₂와…… N_n’ (n≥2) 구문으로 실현되는 체언 N₁와 N_n의 격기능은 集團曲用(金完鎮 1966, 1970 참조)을 하는 것으로 ‘N₁~N_n’까지 집단 N의 격기능이 서술용언 V와의 관계로 파악되는 것인바 집단각용 내부의 ‘와’는 열거접속 기능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즉 ‘N₁의 N₂’ 冠形格 구조가 N₁, N₂의 의미 자질에 따라 N₁의 격기능이 파악되었던 것처럼 ‘N₁와 N_n’ 열거·접속구조도 ‘N₁~N_n’의 구성원 N들의 의미자질 전체와 서술용언 V와의 관계에 따라 집단 N의 격기능이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와’의 존재가 N—V 격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하겠다.

(6-1) 나와 영희와 함께 간다. 〈行爲格 Agent〉

(6-2) 약과 붕대와 물이 소용되었다. 〈道具格 Instrument〉

(6-3) 산과 바다와 들을 좋아한다. 〈對象格 Objective〉

(6-4) 미움과 슬픔과 분노를 버리자. 〈態格 Manner〉

(6-5)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개최 후보지다. 〈處格 Locative〉

(6-6)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기후 〈時格 Temporal〉

끝으로 敘述格體言도 N의 서술어 위치에 좌우되므로 표면 통사적 성분기능일 뿐 전혀 심층격이 될수 없게 된다.

이상과 같이 4기 학자들의 주 특징은 主格, 目的格, 冠形格, 共同格, 敘述格의 格 기능이 심층격이 아님을 주장하고 문장 표면 구조상의 구문표지 또는

구문조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2기 학자들에서 인식된 成分格 개념과 전혀 동일한 것으로 보아 成分格 개념으로 수용하고 4기 학자들의 심층격은 意味格이라고 하여, 결국 體言 N의 格 개념을 ① 統辭機能 즉 成分機能⁹⁾이 나타나는 표면 구조상에서 드러나는 格(이를 表面格 surface case, 또는 統辭格 syntactic case, 또는 成分格 function case이라 부름)과⁹⁾ ② 意味機能⁹⁾이 나타나는 심층구조상에서 드러나는 格(이를 심층격 또는 내면적 deep case 또는 意味格 semantic case이라 부름)의 2원적 격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4기 학자들의 격 개념에 따라 국어 조사를 분류한 것의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成光洙(1979)의 분류]

ㄱ. 格助詞: 에, 에게, 로, 서, 쪄, 부터, 까지 및 이들의 복합형. *體言의 格은 10格〈爲格, 與格, 具格, 共格, 客格, 源格, 達格, 時格, 處格, 路格〉그 이외에 上位格으로 算格(count), 原因格(cause), 屬格(genitive), 受益格(benefactive)의 4격 설정.

ㄴ. 構文助詞

{	主語化助詞: 이/가
	目的語化助詞: 을/를
	冠形語化助詞: 의
	敘述語化助詞: 이(다)
	接續化助詞: 와, 하고, 랑, 며... 등
	呼稱語助詞: 아/야

ㄷ. 限定助詞: 는, 도, 야, 라도, 부터, 까지, 만, 조차, 마저.....

결국 이들 4기 학자들의 조사 분류가 보여주는 것은 ① 종래의 표면 통사구조를 바탕으로 했던 成分格 개념에 대한 止揚, ② 심층 의미구조상의 체언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한 격기능 설정, ③ 補助詞를 限定助詞라고 한 점, ④ 接續助詞에 대한 강화된 인식 등을 주 특징으로 하는 바 특히 接續助詞의 인식 강화는 2기에서 최현배님의 접속조사 별도 설정의 취지와 다시금 비교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助詞 및 格의 研究史를 개관해 보았는데 속단일지 모르나 국어 助詞와 格에 대한 연구는 1~4기의 유형별 연구사적 변천을 통해 그 윤곽이 대략 드러났다고 보여지며 이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국어 조사와 격의 개념을 종합 비판하고 체계화가 요청되는데 우리들의 학교문법은 아직도 2기 문법의 단계를 못 벗어 나고 있다. 이제 學校文法書 [5종류를 자료로 학교

9) 成分格을 function case라 했는데 成分은 constituent이지만 결국 function과 동등한 의미로 쓰기 때문에 function case라 했다.

문법의 格교육의 문제를 살펴본다. 5종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 안은 略記 표시이다.

- A. 문법 : 金完鎭 · 李秉根 공저<박영사 발행> (完 · 根)
- B. 문법 : 金敏洙 저<어문각 발행> (敏)
- C. 문법 : 許雄 저<과학사 발행> (許)
- D. 문법 : 李吉鹿 · 李喆洙 공저<삼화출판사 발행> (吉 · 喆)
- E. 문법 : 李應百 · 安秉禧 공저<보진재 발행> (應 · 秉)

3. 위 교과서들의 품사체계에서 格범주가 기술되는 위치를 찾아 보면 학 교문법통일안에 준하여 모두 9 품사 체계(名詞, 代名詞, 數詞, 助詞, 動詞, 形容詞, 冠形詞, 副詞, 感歎詞)인 이 책들이 格은 모두 助詞 항목에서만 다루고 있다.

3.1. 우선 이 책들의 格개념의 定義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完 · 根> 한 문장 안에서 체언이 다른 단어에 대하여 가지는 자격을 격이라 부르는데... (p. 40)
- B. <敏> 격은 체언이 차지하는 문장 속의 자리 (p. 128)
- C. <許> 격이란 체언이 그 문장 안에서 차지하는 지위(자리), 바꾸어 말하면 체언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말함이니 (p. 45)
- D. <吉 · 喆> (格의 정의가 없이 암시한 말만 보인다) 체언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p. 114)
- E. <應 · 秉> 격이란 체언이 문장 안에서 가지는 자격, 다시 말하면, 체언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뜻한다 (p. 72).

위에서 格의 정의는 이론문법상의 格의 정의와 조금도 손색없이 기술되었으니 金敏洙(1971 : 160)의 “格이란 구문상 체언류와 다른 어류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류”라는 정의, Fillmore(1968 : 21)의 “...the term case to identify the underlying syntactic-semantic relationship...”라는 정의, 김영희(1974 : 276)의 “格은 單文(simple sentence)의 內面구조에서 敘述語(predicator)를 核으로한 名詞(句)들의 통사 · 의미론적 관계(syntactico-semantic relations)이다”라는 정의가 참조된다. 요컨대 格이란 “體言(또는 名詞(句))이 한 문장 안에서 다른 語類와 가지는 문법적 관계”인데 그 문법적 관계는 ① 체언 N이 主語, 目的語, 敘述語, 補語, 冠形語, 副詞語, 獨立語의 7成分中 어떤 成分機能(=統辭機能)을 하느냐의 차원과 ② 체언 N의 어휘의미 자질(lexical sememe feature)이 다른 體言 N이나 用言 V의

어휘의미자질과 어떠한 意味機能을 하느냐의 차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 즉 統辭·意味機能(syntactico-semantic function)의 차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拙稿(1982a)에서는 전자를 體言의 成分格, 후자를 體言의 意味格이라 하고 成分格에는 최현배(1937)의 7成分體系를 이용 체언의 7成分格體系를 세웠으며, 意味格에는 格文法理論 중 비교적 세밀한 의미분석체계를 보인 Nilsen(1973)의 15意味格體系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여기서 예시하여 본다. 밑줄친 체언에 따라 체언의 성분 및 의미격을 적었다.

	〈성분격〉	〈의미격〉
(7-1) <u>나는</u> 간다.	主(語)格	行爲格 Agent
(7-2) <u>영화</u> 를 본다.	目的(語)格(=對格)	對象格 Objective
(7-3) 얼음이 <u>물로</u> 된다.	補(語)格	達格 Goal
(7-4) 그것은 <u>책</u> 이다.	敘述(語)格(=述格)	對象格 Objective
(7-5) <u>민족</u> 의 미래	冠形(語)格 (=屬格, 所有格)	對象格 Objective
(7-6) <u>밤</u> 에 간다	副詞(語)格	時格 Temporal
(7-7) <u>하나님</u> 이시여, 구원하소서.	獨立(語)格	行爲格 Agent

	〈의미격〉	〈성분격〉
(8-1) <u>철수</u> 는 문을 열었다.	行爲格 Agent	主格
(8-2) <u>칼</u> 로 종이를 자른다.	道具格 Instrument	副詞格
(8-3) <u>발</u> 로 두드렸다.	體格 Body Part	副詞格
(8-4) <u>폭풍</u> 으로 나무가 뽑혔다.	力格 Force	副詞格
(8-5) <u>흙</u> 으로 만들었다.	材料格 Material	副詞格
(8-6) <u>그</u> 는 영화를 즐겼다.	經驗格 Experiencer	主格
(8-7) <u>문</u> 이 열렸다.	對象格 Objective	主格
(8-8) <u>사랑</u> 으로 가득찼다.	態格 Manner	副詞格
(8-9) 값은 <u>萬원</u> 이 아니다.	量格 Extent	補格
(8-10) <u>사고</u> 로 늦었다.	原因格 Reason	副詞格
(8-11) <u>서울</u> 에 산다.	處格 Locative	副詞格
(8-12) <u>겨울</u> 이 되었다.	時格 Temporal	補格
(8-13) <u>그</u> 에게서 떠났다.	源格 Source	副詞格

(8-14) 문으로 들어갔다. **經路格 Path** 副詞格

(8-15) 집으로 간다. **達格 Goal** 副詞格

이상의 二元格개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格개념은 體言의 文章內 統辭·意味의 二元的 기능 개념인 바 格의 해석은 體言 N自體로 돌아가야 하고 格형태소는 2차적으로 기술되어지는 문제라는 점이다. 4기의 학자들에 와서 N의 의미기능 분석을 통하여 체언의 여러 의미적분석이 이뤄지게 됨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2기의 전통문법가들 이래 體言 N보다 격형태소(우리의 경우 助詞)에만 집착하여 格의 激論을 벌였던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학교문법은 바로 2기 학자들의 格개념 논의와 格체계 전개방식과 동일한 흐름으로 기술되고 있어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국어 助詞와 格범주에 대한 개념을 혼란시키고 있다. 한 예로 학생들에게 ‘格이란 무엇이나?’는 질문을 던져 조사하여 보면 대개 ‘助詞의 기능’이란 식으로 답하지 ‘體言의 기능’이란 관점으로 답하는 학생을 보기가 어렵다. 이 점은 교사에게서도 格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문법교육이 이뤄진 결과라고 추정된다.

둘째, 二元格 개념중 체언 통사기능에 의한 成分格개념에 따르면 <체언의 成分格=體言의 成分>이란 등식이 성립됨을 알 수 있어 예컨대 ‘내가 간다’라는 문장에서 ‘나’라는 체언은 成分上 主語로 쓰인 것인데 ‘나’는 동시에 ‘主語의 格(자리, 지위)’을 지녔다고, 즉 줄여 主語格 또는 主格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主語라 하든가 主格이라 하든가 통사 기능의 관점에서는 전혀 같은 표현이 된다. 2기 학자들에 의한 格연구의 출발이 成分의 명칭을 거의 그대로 쓴 格의 통사적 개념을 어느 정도 바르게 파악한 결과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체언의 格범주의 체계화는 먼저 체언의 통사기능의 체계화 즉 체언이 문장내에서 성분 기능하는 成分의 체계화와 체언이 문장내에서 의미기능하는 의미기능의 체계화가 先行되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며 조사와 같은 격형태소의 체계는 체언의 格체계 수립이후에 비로소 이뤄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格해석에서 예시해 본 7成分格과 15意味格 체계는 국어에의 적용시 약간의 수정이 예상되는 것이나 분류가 어땠든 二元的 格개념은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국어의 의미적 개념도 김영희(1974), 成光洙(1979)에서 이에 준한 10格의 意味格이 선구적으로 나타난 바 있어 체언 의미자질에 따라 더 세분한 Nilsen의 15格이 국어에 적용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

닐것이다. 아뭇튼 이상의 二元格개념에 따른 체언의 格해석은 格의 개념에 충실한 限 불가피한 해석이라 하겠고, 研究史的으로도 2기 학자들에서는 成分格의 인식이 우세하고 意味格의 인식이 副詞格의 하위분류형태로나 나타나던 것이 4기 학자들에 와서는 정반대로 成分格의 개념이 소멸되고 意味格의 인식만이 극대화된 것과 대조를 이루는데 이러한 二元格개념에 의한 종합적기술은 2~4기 학자들의 格개념인식을 상호 보완하는 결과도 된다.

결국 이러한 二元的 格개념의 관점에서 볼때, 현행 학교문법의 格은 전혀 이러한 구별없이 一線型上에서 획일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니 5種의 교과서의 格체계는 이런 구별없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3.2. 二元的 次元에 의한 格개념의 구별없이 5종의 교과서에 나타난 格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格명칭은 A.〈完·根〉文法書의 명칭을 기준으로 다른 책을 비교하는 식으로 했고 格명칭이 특이한 책의 경우는 해당난 ○표 위에 따로 적었다. △는 그 格의 명칭이 없고 유사하게 다른 체계용으로 설정된 경우이다.

	主 格	補 格	目 的 格	冠 形 格	副 詞 格	叙 述 格	接 續 格	呼 格
A. 〈完·根〉	○	×	○	○	○	×	○ 共同格	○ 獨立格
B. 〈敏〉	○	○	○	○	○	○	○ 對比格	○
C. 〈許〉	○	×	○	○	△	△	○	○ 獨立格
D. 〈吉·喆〉	○	○	○	○	○	○	○ 共同格	○
E. 〈應·兼〉	○	○	○	○	○	○	○	○

위 비교에서 우선 A〈完·根〉의 경우 성분체계에는 서술어를 설정하였는

데 格에는 서술격을 인정않고 있고 ‘-이다’에 대한 처리도 모호한 인상을 주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겠다. 즉 A의 경우 ‘-이다’의 <‘-이-’는 조사가 아니요 용언어간에 붙어 지정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형태소이다> (p47)라고만 말하고 있어 ‘-이다’가 서술격조사도 아니고 崔鉉銘님 式의 指定詞도 아니고 과연 그 무엇인지 명확히 명칭화 되지 않았다. 그리고 C<許>의 경우도, 서술어는 설정하고서 이상하게도 ‘-이다’를 다른 격조사와 동등히 서술격조사라고 정식으로 命名하지는 않았고, 조사로는 보되 또 격조사와는 다른 항목에서 따로 두고 있는 것이 기이하다.

다음 補格에 대해서도 A는 補語를 설정하고서도 補格을 설정 안하고 主格 항목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으며, C는 아예 補語도 설정 안되었고 補格 역시 설정 안되었다. 그런데 C<許>의 경우 다른 네 책과 달리 成分體系가, 특이하여 주어·목적어·위치어·대비어·방편어·관형어·부사어·인용어·독립어·서술어의 10 성분체제이고 이중에 체언이 나타나는 성분의 격을 주격·목적격·위치격·대비격·관형격·호격(호격은 독립격과 同軌)의 7 성분격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許>의 위치격·대비격·방편격은 다른 A·B·D·E의 副詞格과 對等한 것이라 정작 C<許>에는 副詞格이 없게 된다. 물론 C<許>에는 副詞語성분이 있지만 이는 체언 副詞語도 副詞語로 보는(예: 학교에 있다. 의 학교) A·B·D·E의 副詞語와 개념이 다른 것으로 <許>의 副詞語는 副詞에 의한 副詞語만으로 대폭 축소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차이점을 제외하면 위 책들에 보인 학교문법의 格체제는 2기 문법에서 지배적이던 체언의 통사기능 즉 성분기능을 主流로 하는 格체제임을 알 수 있다. 대개 이책들이 成分에 있어서 主語, 補語, 目的語, 敘述語, 冠形語, 副詞語, 獨立語는 인정하고 있어 이 成分 자리에 나타난 體言을 主格 補格, 目的格, 敘述格, 冠形格, 副詞格, 獨立格이라고 成分格을 命名함은 당연한 결과일 것인데 獨立格 대신 意味기능에 의한 呼格으로 命名한 경우가 있어(A, C, E) 명칭상 일관성의 결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일관성의 결여는 接續格 또는 共同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이 책들 모두 ‘와/과’류를 接續格(A·D책) 또는 共同格(B·E 책), 對比格(C 책)으로 각각 설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接續語와 전혀 무관한 것이고 接續語格의 줄임말은 더구나 아닌 것이다. 이점 主語格, 目的語格……의 준말로 主格, 目的格……을 쓰는 것과 다른 것이다. A<完·根>에서는 설정의 당위성은 덮어 두고라도 接續語 성분의 설정없이 이와 무관한 接續格을 쓰고 있고, D책도 接續語를 설정하고서 사실상 이와는 아무관계도 없는 接續格을 두어 오해의 여지가

있다.¹⁰⁾ 차라리 接續語를 설정하고서 共同格이란 용어를 쓴 B·E 책이 더 합리적인데 共同格이라 쓰더라도 이미 이것이 成分格기능이 아니며 ‘與同性’이라는 의미기능을 바탕으로한 의미격기능상의 명칭이 되어 主格, 目的格……등과 같은 成分格 명칭과 균형의 일관성은 없게 되는 것이다. 아뭏든 接續語格의 준말은 아니고 실제 接續語와 아무 관계도 없는 <接續格>이란 용어나 의미격명칭인 <共同格>을 成分格 명칭인 主格, 目的格……등과 同列로 가르치는 것은 格개념의 혼선을 학생들에게서 불러 일으키는 것이니 여기서도 格의 二元格 개념을 교수방법으로 도입한다면 한결 格의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된다. 더우기 위의 格체계 비교에서 處格, 向格, 與格, 具格…… 등 여러 意味格을 下位體系로 지니는 것으로 2기학자들이 기술한 副詞格의 下位體系(이것이 대개 4기의 意味格임)는 비교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이들 副詞格의 意味格 개념인 處格, 與格, 向格, 具格……등을 成分格개념인 主格, 目的格……등과 同等한 次元의 格인 양 가르치는데서 오는 格개념의 혼란은 二元格개념으로 구별 敎授할 때에 비로소 해결된다고 하겠다. 이제 위 책들의 副詞格체계의 비교를 살펴보자.

3.3. 위 책들의 格을 가르침에 있어 가장 복잡한 것은 副詞格 부분인데 이는 국어 副詞格체계의 의미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으로 理論文法에서도 국어학자들의 格體系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자칫 복잡하게 보이는 이러한 副詞格의 다양성은 위 책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음에 이들의 副詞格체계만을 비교한다.

A <完·根>	B <敏>	C <許>	D <吉·喆>	E <應·秉>
與 格	與 格	位置格	附與·相對	與 格
處所格	處所格		處所·方向	處所格
奪 格			原因·材料	
造 格		方便格	出處·手段	具 格
變成格	變成格		變成·資格	
比較格		對比格	比較·共同	
			引用	
(6 격)	(3 격만 예시, 자세한 설명 없음)	(용어가 특이함)	(13가지, 그러나 격이라고는 안했음)	(3 격만 예시)

10) 「학교문법통일을 위한 細案」(1967)에서도 접속격을 설정하여 이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主格…등은 主語格…등의 준말로 이해되나 接續格은 接續語格의 준말로 혼동되기 쉬운 것이 학생들의 입장이다.

위 비교에서 드러나는 각 특징은 A의 경우 비교적 意味格개념의 격이 골고루 제시되었으나, B는 자세한 분류를 안하는 상태로 3格 제시만으로 끝나고, C는 成分체계가 특이해서 아예 位置語・方便語・對比語와 같은 意味機能을 내포한 成分 명칭을 설정했던 바 C 자체로서는 成分格개념에 충실한 것인 位置格・方便格・對比格을 설정했는데 사실 이것은 다른 네 책의 副詞格에 해당하는 것으로 意味格 개념에 해당한다. 또 D는 副詞格은 설정하였으나 附與・相對・處所……등 13가지의 意味機能 제시를 하고 여기에 格명칭을 부여하지 않은 채 끝나는 것이 특징이고 共同格, 引用格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E는 副詞格의 下位를 3格제시로 끝나 B처럼 분류폭이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格의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는 格표지인 格형태소(국어의 경우 助詞)와 格의 상호관계인데 한 조사가 여러 격기능으로 해석되거나, 여러 다른 격조사가 하나의 격기능으로 해석되는 관계의 정립 문제인 것이다. 예컨대 아래 (9)~(11)은 한 조사가 여러 격기능표지로 해석되는 예이다.

이/가 (9-1) 물이 흐른다. (주격)

(9-2) 물이 아니다. (보격)

에서 (10-1) 우리 반에서 일등했다. (주격? 처격?)

(10-2) 서울에서 떠났다. (처격? 源格?)

(10-3) 학교에서 공부한다. (처격)

(10-4) 이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 (처격? 비교격?)

에 (11-1) 학교에 있다. (처격)

(11-2) 차에 치다. (원인격)

(11-3) 학교에 간다. (향격)

(11-4) 우리도 남에 못지 않다. (비교격)

(11-5) 그곳에 편지를 보냈다. (여격? 처격?)

또, 아래 (12)~(13)은 한 격기능표시에 동원되는 여러 격조사들의 경우이다.

與 格 (12-1) 그에게 책을 보냈다.

(12-2) 꽃밭에 물을 주었다.

(12-3) 선생님께 드려라.

(12-4) 너한테 말했다.

(12-5) 철수보고 말했다.

原因格 (13-1) 바람에 넘어지다.

(13-2) 병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格子능 : 格형태소]의 상호관계는 1 : 多, 多 : 1의 관계를 보임이 일반적인 바 英語의 경우도 의미적 기능의 표지로 생각되는 국어조사와 유사한 9주요 전치사 at, by, for, from, in, of, on, to, with가 각각 여러 의미기능을 지니고 있고(사전의 기술을 참조하라) 또, 한 의미적 기능에도 이들 전치사가 여럿 동원될 수 있어(예컨대 처소기능에 쓰이는 at, in, on파위) 外國語로서 英語學習에 전치사 학습의 어려움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내지 전치사)류의 의미적 기능을 정밀히 범주화하여 세분하기는 意味分析者의 主觀性, 恣意性에 기인하는 어려운 작업임엔 틀림없으나, 우리의 입장에서 학교문법에 기대되는 것 하나는 오히려 다양한 체언의 의미적 분석과 그 체계가(예 : 김영희, 成光洙의 10격, Nilson의 15격파위) 학교문법에서 교과서 속이나 교수방법에 적절한 수준으로 도입 교육된다면 學校文法에서 意味論 領域의 學習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4기 학자들에 와서 체언의 의미적을 통해 主格이 단순한 양상이 아니며 行爲格 Agent, 經驗格 Experienter 파위로 나뉘질 수 있고 그 동안 場所의 Locative와 時間의 Locative를 處格(Locative) 하나로 보던 것도 時間의 Locative는 時格(Temporal)으로 분리 설정하므로서 이런 의미론적 격분석의 방법은 체언의 특성을 정밀히 밝혀 낸 것이라 하겠는데 정밀한 의미적 체계의 학습을 통해 국어 체언의 의미특성을 학습함으로써 국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가져올 것이고 체언 어휘 의미분석을 통한 어휘의미의 의해는 사고증진과 정확한 어휘사용능력 등에 긍정적 요소로 보인다. 그런데 意味格 체계의 도입과 교육은 굳이 성분격처럼 통일된 체계가 아닐지라도 좋을 것이니 앞例 (3)~(6), (9)~(13)처럼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는 국어 의미적의 양상을 제시하는 것이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런데 意味格 체계의 도입을 시도한다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니 이미 기존 문법 교과서 A-E에서는 意味格이 副詞格의 下位次元으로 제시 교육되어 온 바로 이를 보다 정밀히 강화하고 成分格인 副詞格의 下位次元이 아니라 成分格의 對體的 關係에서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적 개념의 정상화는 格의 본질인

體言의 統辭意味 기능관계라는 二元的 格개념에 충실한 것이 될 것이고 格표지 중심의 格논의가 體言자체에로 복귀되는 당연스런 귀결이라 하겠다. 적어도 A-E에서 보이는 의미격의 단편적 제시와 副詞格下位에서의 설정 처리는 차라리 格개념 혼동의 주원인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격 개념과 의미격 체계의 도입은 格範疇의 教授時 최소한 教授方法上으로라도 도입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二元格개념의 도입시 二元格개념의 교육이 助詞에 앞서 體言범주에서 教授되어 ‘助詞의 格’이 아닌 ‘體言의 格’임이 인식된 후에 비로소 ‘格標指로서의 格助詞’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점 학교문법서들은 格을 助詞항목에서 助詞중심의 형태론적 기술로만 그치고 있어 體言항목에서는 格개념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格개념의 혼동에 대한 가장 중대한 원인이라 하겠다.

바로 性(sex), 數(number), 格(case), 人稱(person)은 體言의 하위 문법범주인 바 格은 體言항목에서 기술되어야 마땅하고 그후에 助詞항목에서 그러한 格표지로서의 格助詞를 기술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教授한다면 格의 文法教育은 正道를 걸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남는 문제는 이제 二元格 개념을 학교문법에 도입한다면 그것은 어떤 체계의 모형으로 교수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줄고(1982a)에서 시도한 7성분격과 15의미격과 같은 모형도 한 예가 될 것이니 체언항목에서 이런 체계에 따라 格 기술을 할 경우에는 앞 예(7-1)~(8-15) 같은 例示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지금까지 우리는 學校文法の 格 教育의 문제점을 논의해 왔는데 세부적인 논의까지는 못하고 개념적인 논의만으로 시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

① 지금까지 體言자체의 통사·의미기능 개념이어야 할 格이 助詞중심의 格으로 교육되어온 것은 格개념 혼란의 원인으로 현 문법 교과서의 체언항목에서 格을 미리 설명한 책은 하나도 없는 바 앞으로는 格의 記述과 교육이 體言 항목에서 먼저 體言의 格으로서 이뤄지고 나서 格표지로서의 助詞가 助詞항목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② 格의 二元 概念인 成分格과 意味格 개념에 따라 체언의 통사·의미기능을 교육시킴으로 體言의 格범주를 통한 意味論교육의 도입이 가능하다. 이것은 종래 副詞格의 下位體系로나 가르쳐진 意味格양상을 意味格체계로 도입하여 국어 체언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분석 이해시켜 意味論 教育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大 師大 조교)

〈참고 문헌〉

- 高永根(1976), “특수조사의 의미분석”, 문법연구 3집, 문법연구회
- 金敏洙(1960), 국어문법론연구, 통문관
- (1970), “국어의 격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9·50
- (1971), 국어문법론, 일조각
- 金昇坤(1978), 韓國語助詞의 通時的 研究, 대제각
- 김영희(1973), 한국어 격문법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 (1974),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문법연구 1집, 문법연구회
- (1978), “접주어론”, 한글162호
- 金完鎭(1966), “집단 폭용의 문제에 대하여”, 동아문화 6
- (1970), “文접속의 ‘와’ 와 句접속의 ‘와’” 어학연구 6-2
- 文教部(1979), 맞춤법안(試案)
- 閔賢植(1982a), 현대국어의 격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1982b), “국어맞춤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I)”, 선청어문 13, 서울대 국어교육과
- (1982c), “국어 조사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박순함(1970), “격문법에 입각한 국어의 접주어에 대한 고찰”, 어학연구 6-2
- 成光洙(1979), 국어조사의 연구, 형설출판사
- 신익성(1968), “격에 대하여”, 한글141
- 申昌淳(1975), “國語助詞의 研究(I)”, 국어국문학 67호,
- (1976a), “國語助詞의 研究(II)”, 국어국문학71호,
- (1978), “國語統辭構造의 理論과 實際”, 언어연구 1집, 부산대학교 어학연구소
- (1979), “國語統辭論의 몇가지 基本問題 —단위·품사·기능—” 문법연구 4집, 문법연구회
- 沈在箕(1981), 국어 어휘론, 집문당
- 이석린(1963), “우리말에 격어미설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글 131
- 李崇寧(1953), “격의 독립품사시비”, 국어국문학 4
- 李承旭(1973), 국어 문법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 李庸周(1976), “國語教育의 改善에 관한 小論”, 先淸語文 7 집
- 李翊燮, 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學研社
- 任洪彬(1972), 국어의 주제화연구, 국어연구 28,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1974), “주격 중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 蔡琬(1976), “조사 ‘는’의 의미”, 국어학 4
- 崔鉉培(1937, 1971), 우리말본, 정음사
- 洪起文(1947), 조선문법연구, 서울신문사
- 洪允杓(1969), 15세기 국어의 격연구, 국어연구 2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1979), “국어의 조사”, 언어 4-2
- (1980a), “근대국어의 격연구(I)”, 김준영선생 화갑기념논집
- (1980b), “근대국어의 격연구(II)”, 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집
- Fillmore, C. J. (1966), “Toward a Modern Theory of Case”, Reibell and Schane, (ed.) *Modern Studies in English*.
- (1968), “The Case for Case”, In Bach and Hams
- (1971), “Some Problems for Case Grammar”, *Working Paper in Linguistics* 10
- Lyon, J.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lsen, D. L. F. (1972), *Toward a Semantic Specification of Deep Case*, The Hague: Mouton
- (1973), *The Instrumental Case in English*, The Hague: Mouton
- Ramstedt, G. J.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Underwood,
- H. G. (1890),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